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 광양시 의회청사 그린 리모델링 대상지 선정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내년 착공 용역 실시

광양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시의회청사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녹색건축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와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 의회청사는 의회와 14개 분야의 시청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준공된 지 25년이 경과돼 건물과 설비가 노후화 됐다.

또 4면이 커튼월 형태로 되어있어 여름철 과다한 일사량 유입과 환기시스템 부재로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점이다. 이에, 시는 전문 기관을 초청 건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균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번 사업에 공모하게 됐다.

사업은 대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에서 추진하며, 의회청사 건물에 대한 노후건물 현황평가(Green Clinic)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평가 내용으로는 노후 건물의 실내환경과 성능개선 평가와 대상 건물의 에너지성능, 폐적성, 건강과 안전요소 측정과 결과분석,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오는 5월 중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협약을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필식 청사관리팀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청사 건물의 상태 진단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세밀히 분석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열악한 균무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51건이 응모됐으며, 그린리모델링 장조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LH) 심의위원회의 1차, 2차 평가를 거쳐 21건이 최종 선정됐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2/4분기 순천 제조업 체감경기 호전 전망

### 순천상공회의소

순천상공회의소(회장 김종숙)는 최근 관내 순천, 구례, 보성) 58개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BSI 전망지수가 '111'로 전망돼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호전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순천 지역 제조업체들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수출의 매출(112)과 영업이익(119) 그리고 자금조달 여건(107)은 전 분기에 비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내수시장의 매출(112)과 영업이익(119) 또한 체감경기가 호전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 ‘제5회 화순고인돌문화축제’ 성료

‘2018 제5회 화순고인돌문화축제’가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도곡면 효신리 고인돌유적지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정보리 물결따라~ 고인돌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화순고인돌문화축제위원회(위원장 이현서)가 주관했다.

특히 도곡면청년회에서 고인돌유적지 인근에 정보리 10,000여 평을 식재해 정보리 관리 프로그램을 주관 운영하는 등 볼거리, 체험거리가 풍성했다.

축제의 주요행사로 첫째 날 개막식 겸 고인돌아이기 재현, 지역민 체육경기, 둘째 날은 화순군 학생 장기 자랑, 고인돌 OX퀴즈와 둘둘기 대회, 해설사와 함께하는 트레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화순=박순철 기자

축제 첫날인 21일 초대가수 남진이 ‘님과 함께’ 등 히트곡을 부르고, 둘째 날인 22일 ‘사랑의 밧줄’의 김용이 출연해 축제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또한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유적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고인돌 선사체험장이 지난 14일 개장돼 고인돌아이기 중심의 체험프로그램 등 여느 축제 때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참여형·체험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21일 열린 개막식에는 구충곤 군수, 강순팔 군의회 의장, 문행주 도의원, 최기천 군의회 부의장, 김천국 농협군지부장, 조영길 화순군신품조합장 등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관광객 등이 함께했다.

축제의 주요행사로 첫째 날 개막식 겸 고인돌아이기 재현, 지역민 체육경기, 둘째 날은 화순군 학생 장기 자랑, 고인돌 OX퀴즈와 둘둘기 대회, 해설사와 함께하는 트레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화순=박순철 기자

## 다문화가정과 ‘다정다감(多情多感)’ 나눔행사 개최

순천시자원봉사센터 · 보해양조 순천지점



이웃에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기업의 사회공헌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해양조 김상호 순천지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을 뵙고 나면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이웃들도 잠시나마 따뜻한 정을 느끼며 훤히 웃을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우리가 받은 많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보해양조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원봉사센터 김일중 소장은 “4년째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보해양조 순천지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보해양조의 나눔 시례가 많은 기업의 귀감이 되어 사회공헌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읍 예술이 있는 날’ 개최

### 광양문화원 앞 문화의 거리 일대

회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도 열릴 예정이다.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9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광양을 예술이 있는 날’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봄+아트소교동’ 이란 제목으로 광양문화원 앞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공방과 문화공간에서 다양한 예술체험 활동이 펼쳐지며, 시민기획단에서 기

또 행사가 열리는 문화원 광장에서는 예술가들의 정성이 담긴 수공예 작품 체험과 판매가 진행되며, 어린이를 위한 에어버스 풋볼, 버스킹 공연이 각 시간마다 연주된다.

특히, 만3세~8세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술색칠놀이터 ‘바둑아, 이웃 어때?’와 미술놀이터 ‘비빔개비 만들기’가 준비돼 있다.

이날 만들어진 바람개비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장을 주변에 설치할 예정이며, 당일 선착순 현장접수로 진행되는 민족 아이들과 함께 예술놀이 체험에 참여할 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나주 혁신도시 유전제, ‘에너지 파크(park)’로 새 단장

### 자가발전 식 놀이·체험·휴식 시설 들어설 예정



령종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인 ‘유전제공원 에너지파크’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특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1,000백만 원(국비100%, 시비40%)이 투입된다.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들의 과학교육과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자가발전식 모노레일, 회전 놀이대, 시소 등 놀이·체험·문화 시설을 비롯해 종·장년층을 배려한 태양광 벤치, 파고라 등 신박·휴식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주시는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를 테마로 전 연

시는 휴게 목적으로 광장으로 조성된 유전제 공원 기준 자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조경·휴양·기반·녹지 등 시설물을 재배치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놀이·체험·문화 시설을 접목시켜, 타 지역과는 차별화 된 테마가 있는 친환경 에너지 공원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재윤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유전제공원 에너지파크를 유이에서 노년층까지 누구나 찾고 싶은 놀이 및 휴식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에너지 테마 공원으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환경을 높이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